

골골 대는 결정력... 과감한 슈팅이 필요해

아시안컵 오늘 밤 10시 30분 중국과 조별리그 3차전

필리핀·키르기스스탄전 압도적 볼 점유율에도 각각 1-0 살얼음 승
밀집축구 돌파에 주력 공격 템포 느려져... 세트피스 정확도 키워야

“선수들이 너무 완벽한 기회를 만들려고 슈팅을 자제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1, 2차전을 치른 태극전사들을 지켜본 김판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장은 과감한 슈팅의 부재를 가장 아쉬운 장면으로 돌아봤다.
한국은 지난 7일 조별리그 C조 1차전 상대인 필리핀의 밀집 수비를 뚫기 위해 무려 82%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공세를 펼쳤지만 단 1골을 얻는 데 그쳤다.

태극전사들은 필리핀을 일방적인 몰아치고도 유효슈팅은 5개에 그쳤고, 전체 슈팅도 12개에 불과했다.
상대의 밀집 수비를 끌어내는 방법의 하나는 과감한 중거리 슈팅이지만 수비가 물려있는 중앙 공략에 애를 썼고, 총 782번의 패스를 했다. 결과로만 보면 필리핀 문전에서 불만 돌리다 끝난 경기였다.
그나마 키르기스스탄전에서는 한국의 전체 슈팅이 15개로 살짝 늘었고, 유효슈팅도 7개를 시도했지만 결국 1골에 머물렀다.

아시안컵 중국전 예상 선발
16일 오후 10시30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알 나얀 스타디움



두 경기 모두 과감한 중거리 슈팅이 없었다는 게 공통점이다. ‘빌드업 축구’에 집중하면서 상대 진영을 썰어 들어가는 플레이에 몰두하다 보니 스스로 답답한 경기를 치른 셈이다.
선수들이 과감한 슈팅보다 보다 완벽한 기회를 만들려고 볼을 찢는 불필요한 과정이 늘어난 탓이다. 그러다 보니 경기 템포도 느려지고, 슈팅 과정에서 골키퍼나 상대 수비수를 맞고 나오는 세컨드 볼을 따내는 기회도 스스로 날리는 셈이다.
슈팅만큼이나 안타까운 것이 세트피스다.
벤투호가 이번 대회에서 세트피스로 득점을 뽑은 것은 키르기스스탄전이 유일하다. 홍철의 코너킥을 김민재가 골대 오른쪽에서 방향을 돌려 결승골을 뽑아냈다.
필리핀전에서는 단순한 코너킥과 위력 없는 프리킥으로 기회를 날렸지만 키르기스스탄전에서는

코너킥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며 상대 수비진을 흔들었고, 결국 김민재의 득점으로 이어졌다.
이창용(보훈)은 키르기스스탄전이 끝난 뒤 “세트피스 훈련을 많이 했다. 매 경기 새로운 것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두 경기 결과에서 중국전 승리의 키워드가 모두 나온 셈이다.
중국은 필리핀과 키르기스스탄과 달리 한국과 정면 승부를 펼칠 것이다. 수비진의 틈이 보이면 과감하게 슈팅을 하고, 프리킥과 코너킥에서 정교함을 살리면 승리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
16강에 진출한 중국은 한국전에서 지더라도 잃을 게 별로 없다. 반면 한국은 중국을 이기지 못하면 동북아 축구의 맹주라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토너먼트에서도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역전의 명수’ 정현

호주오픈 1회전 3시간37분 혈투
1~2세트 뺏긴 뒤 3~5세트 역전극
17일 2회전 佛 에르베르와 대결

한국 테니스의 희망 정현(25위·한국체대)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6250만 호주달러·약 503억원) 1회전에서 믿기지 않는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정현은 15일 호주 멜버른 파크 8번 코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이틀째 남자단식 본선 1회전에서 브래들리 클란(78위·미국)에게 3-2(6-7(5-7) 6-7(5-7) 6-3 6-2 6-4) 대역전을 거뒀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 대회 4강의 쾌거를 이뤄냈던 정현은 17일 피에르위그 에르베르(55위·프랑스)와 32강 진출을 다룬다.
정현과 에르베르는 지금까지 두 차례 만나 1승씩 나눠 가졌다.
정현은 이날 클란을 상대로 먼저 1, 2세트를 내주며 고전했다. 전열을 가다듬은 정현은 3세트부터 반격에 나섰다.
1, 2세트를 모두 아쉽게 내준 정현은 3세트 초반부터 클란을 공략했고 3세트 게임스코어 4-1까지 달아난 끝에 6-3으로 한 세트를 만회했다. 자신감을 되찾은 정현은 4세트부터 확실히 상승세로 돌아섰다.
메디컬 타임아웃을 부르는 등 몸에 이상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 클란을 더 적극적으로 몰아세우며 4세트 역시 게임스코어 4-1로 달아나 풀세트 승부를 예고했다.
4세트까지 3시간 3분이 소요된 이날 경기는 마지막 5세트 게임스코어 5-4에서 정현이 클란의 서브 게임을 잡아내며 3시간 37분이 걸린 대접전의 주인공이 됐다.
정현은 먼저 게임스코어 3-2에서 0-40으로 트리플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았으나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자신의 서브 게임을 확실하게 지키며 기회를 엿보던 정현은 게임스코어 5-4였던 상대 서브 게임에서 상대 실책을 묶어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연합뉴스



“좋았어” 정현(25위)이 15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 파크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자단식 본선 1회전에서 브래들리 클란(78위·미국)을 상대로 3-2(6-7(5-7) 6-7(5-7) 6-3 6-2 6-4) 대역전을 거둔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상호 공백? ... 걱정마! 김태윤·여름 있잖아

광주 FC 박진섭 감독 주장·부주장 지목... “원팀으로 승격하겠다”

‘노련한 수비수’ 김태윤(사진 오른쪽)과 ‘터줏대감’ 여름이 광주 FC의 승격에 앞장선다.
광주에서 두 번째 시즌을 앞둔 박진섭 감독은 최근 팀을 대표할 ‘주장’으로 베테랑 수비수 김태윤을 지목했다. 김태윤을 보좌해 선수단 가교 구실을 할 부주장은 여름이 맡았다.
그라운드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광주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 두 사람은 ‘원팀’을 외치며 승격을 위한 시즌을 다짐하고 있다.
김태윤은 “중책을 맡았다. 기존 선수들보다 나이가 많아서 감독님이 주장을 시키신 것 같다. 책임감 가지고 최선을 하면서, 작년에 아쉽게 못 한 승격을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큰 책임감은 태윤이 형에게 맡기겠다”며 웃은 여

름은 “부주장으로 감독님, 선수들, 스태프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형이 잘하시기 때문에 애들하고 대화하면서 뒤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참인 김태윤은 성남 시절이던 2006, 2007년 박진섭 감독과 동료로 뛰었던 만큼 사령탑의 축구 색과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김태윤은 “감독님하고 선수 생활해서 편하다. 지켜봤던 기간도 길기 때문에 거리감이 많이 없다”며 “선수 때부터 영리하게 차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됐다. 선수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2년 차니까 선수들도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했을 것 같다. 중간에서 선수들 힘을 때 이야기도 하고 그러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프로 선수다운 투지와 함께 인성도 강조할 생각이다.
김태윤은 “열심히 하는 것은 프로 선수로 당연하다. 서로 경쟁도 해야 한다. 팀원들의 시간 약속 등이 중요하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인성까지 갖춘 선수들이 대성한다. 이런 부분도 강조하겠다”고 언급했다.
태극 리그를 경험했던 김태윤은 외국인 선수들도 살뜰하게 살피겠다는 각오다.
여름은 “부주장을 맡아서가 아니라 팀이 하나가 되는 게 우선이니깐 먼저 여러 선수들에게 다가가겠다. 그다음 경기장에서 팀의 힘이 나온다. 같이 하자, 형이 먼저 할 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다. 우리 팀 색은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이 경기장에 더 많이 보이게끔 많이 뛰겠다”며 “승격이 우리팀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하나가 되는 게 키워드다. 실수는 누구

나 한다.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칭찬하면서 독려하면서 해야 힘이 나온다. 팀을 위해서 뛰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을 본다”고 “하나”를 강조했다.
지난 시즌 각각 부상과 부진으로 속앓이를 했던 두 사람은 실력으로도 선수단 앞에 서겠다는 각오다.
김태윤은 “작년에 축구하면서 가장 크게 다쳤던 것 같다. 올 시즌 안 다치고 하는 게 제일 큰 목표”라며 “젊은 선수가 많으니까 요즘 애들에 맞춰 가야 한다. 젊은 스타일로 많이 뛰 것이다. 고참들도 뒤지지 않게 많이 뛰고 서로 이끌다 보면 팀이 하나가 되고 무서운 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즌 중반 상무에서 전역을 하고 팀에 재합류한 여름은 “지난 시즌 내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다. 활발하게 뛰어나고 투지 넘치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부상도 있고 많이 쉬었다. 동계 훈련부터 열심히 해야겠다”며 “클래식 리그에 있다 오면서 쉬울 줄 알았는데 바로 초심을 찾았다. 경기 에 뛰는 선수나 안 뛰는 선수나 모두 하나가 되어 승격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름 기자 wool@kwangju.co.kr